

소설에서 추적한 제주4·3과 한국현대사

- 나카무라 후쿠지의 『김석범 ‘화산도’ 읽기』(삼인, 2001) -

김 동 윤*

1.

재일 작가 김석범(金石範)의 대하장편 『화산도(火山島)』(1997년 완간)는 작가가 일생을 걸고 완성한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작품 연재 기간도 197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20년(제1부 끝내고 제2부 시작되기까지 5년간은 제외)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여러 작품들도 결국은 『화산도』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7권으로 간행된 『화산도』는, 390~558쪽으로 2단 편집되었다. 한국어판이 출간된다면 15권 정도의 분량이 되어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 한국에서는 앞의 3권(제1부)만 이호철·김석희 번역으로 1988년 실천문학사에서 간행(5권 분량)되었다. 당시 한국의 독자들에게 『화산도』는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작가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판 『화산도』는 내용상 불충분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김석범은 이에 대해 “번역본이 원작과는 달리 일기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 중요한 대목들이 군데군데 생략되어 있어 그 후 완결한 『화산도』 제2부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 지장을 주게 되었다”(『김석범 ‘화산도’ 읽기』, 269쪽)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화산도』 전편이 번역 출간되지 않는 이유는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그 방대한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1부 번역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산도』가 아직 한국에서 일부만 번역된 상태에서, 번역본 완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형편에서, '기이한' 저서가 출판되었다.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가 쓴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4·3항쟁과 제일 한국인 문학』(삼인, 2001)이 그것인데, 『화산도』 전편을 대상으로 한 단행본 연구서가 일본 학자에 의해 한국에서 출판된 것이다(일본서적을 번역한 것이 아님). 일본인 경제학 전공자가 문학작품에 관한 평론서를 텍스트의 부분 번역만 이루어진 한국에서 내었으니 어찌 기이한 출판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저서는 단지 기이하다는 현상에만 그치지 않는 문제작이다.

2.

서장을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석범 '화산도' 읽기』는, 소설 『화산도』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화산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이 책에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3~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장과 1~2장은 3~5장을 기술하기 위해 작가의 위상과 작품의 형성 경위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미리 짚어본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이 배경적 진술에 불과하다거나 그 의미가 적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서장: 김석범 문학이 제일 조선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주요 제일 한국인 작가들 가운데에서 김석범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밝힌 부분이다. 이회성, 김학영과 함께 김석범을 다룬 다케다 세이지의 『'재일'이라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김석범의 위상을 부각시킨 후, 저자는 김달수의 『박달의 재판』·『현해탄』·『태백산맥』과 김석범의 『만덕유령기담』·『1945년 여름』·『화산도』를 대비 고찰한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재일조선인 문학을 형성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그 과제를 추구”한 작가가 김석범이라면서 “재일 조선인의 존재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국을 무대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작가는 김석범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31쪽)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1장: 『화산도』 가는 길’에서는 김석범의 첫 작품 『까마귀의 죽음』(1957)과 한글로 쓴 미완의 장편 『화산도』(1965~67년 『문학예술』에 9회 연재)가 대하장편 『화산도(火山島)』와 인물·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화산도』의 모태요 원점ियो 원형이 『까마귀의 죽음』이더라는 김석범의 고백을 저자는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실증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중인물의 모델이 누구인지까지 일일이 짚어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자의 치밀한 독서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화산도』의 구성과 주제’에서는 이전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화산도』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었고, 변형된 까닭은 무엇이며 스토리 전개에 큰 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급한다. 비판정신에 투철한 자유인인 이방근이 『화산도』의 중심인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확인한 다음, 이방근을 중심으로 엮어진 가족·지인 등과 남승지를 비롯한 남로당 관계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관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3장: 『화산도』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에서는 해방 3년사 파악 문제, 반민특위 관련 친일파 문제, 등장인물 박갑삼(황동성)의 형상화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꽤 깊이 있게 드러난 부분이다. 『화산도』를 제주도라는 공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 전체의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작품을 읽는 또 다른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 정권 수립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자의 지적은 바로 그 같은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4장: 『화산도』와 4·3 사건’에서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주4·3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봉기 직전인 1948년 2월부터 빨치산이 붕괴하는 1949년 6월까지가 『화산도』의 시간적 배경인 바, 5·10선거와 여순사건을 기점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이방

근·유달현·정세용 등의 등장인물들이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김석범과 저자의 4·3 이해의 깊이가 만만치 않음이 입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끝으로 '5장: 이방근의 가족 제도 비판 및 여성·연애·결혼관'에서는 주인공 이방근의 가정 환경과 가족 문제, 여성관과 연애·결혼관, 여동생 이유원의 연애·결혼·유학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인 또는 제주인의 삶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사회의 가족제도, 학교제도 등에 대해서 당시의 법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며 아주 꼼꼼히 고찰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책은 작품을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기존 문학 평론이나 문학연구의 차원과는 유다른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4·3은 물론 해방 직후 한반도와 제주도의 정치와 사회, 생활상 등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탐색의 결과물이 바로 『김석범 '화산도' 읽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두고 '수준 높은 인문예세이'(박명림, 「정치와 역사 읽기로서의 소설 읽기」, 『창작과비평』 2001년 겨울호)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저 의례적인 상찬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3.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는 한 일본인 학자의 노작에 경탄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을 느꼈다. 그 아쉬움은 관점과 해석에 따른 문제도 있고 자그마한 실수로 보이는 사항들도 있다.

우선, 역사의 결과를 두고 소설의 상황 설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에서의 반민특위 활동이 성공하면 제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한성주와 이방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저자는 “냉전하 미국의 후원으로 국가 기구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이승만 세력이 폭력 정치를 필사적으로 동원하여 열세를 만회하려는 상황을 냉정히 바라본다면 너무나 낭만

적인, 실제로는 불가능한 견해”(118~119쪽)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필자는 소설 속의 상황이 4·3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이상을 꿈꾸는 성향의 인물들인 경우 반민특위의 승리가 제주도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근이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이런 낙관적 전망이 빚나간 데 따른 결과라고 보면 소설의 상황은 결코 어색한 설정이 아닌 것이다.

1948년 10월 서울 인사동 화장품 가게에서 일체 화장품을 팔고 일본 가요가 흘러나오는 상황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119쪽)에도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왜색 불인정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왜색이 청산되어 발붙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았고 아직 해방 3년에 불과한 실정에서 일체 잔재는 얼마든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로당원 박갑삼에 관한 언급들도 수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저자는 가족을 평양으로 보내고 남에서 활동하는 박갑삼을 두고 “왜 가족만 평양으로 보내고 자신은 북으로 피신하지 않은 채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시종일관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127쪽)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해방 직후의 격변기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과 이별한 채 활동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저자가 왜 그런 의문을 던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박갑삼이 스파이 행위 때문에 체포되지 않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점을 가지고 “김석범의 역사인식 불철저성에서 기인”(133쪽)했다는 것도 무리한 발언이라고 본다. 이 점은 친일에 부정적인 면을 애써 외면하려는 일본인 학자로서의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되지 않았나 한다.

일본인 학자로서의 사고가 배어있는 것으로 읽혀지는 예는 좀더 들어볼 수 있다. 이방근의 아버지가 사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의 친일행위에 관한 언급만 하고 미군정기의 치부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198쪽)이 그 일례다. 그리고 면장이라는 신분에서 얼마나 친일행위를 했겠느냐는 지적(204쪽)도 그런 차원에서 읽혀진다.

이 책에서 인명과 지명 등 사실들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

많이 발견되는 것도 흠이다. 이런 흠이 발생한 원인은 저자에게도 있겠고, 일본어 초고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며, 교정자의 책임이기도 할 것이다. 추후에 책을 접할 독자들을 위해 여기서 그 사례들을 밝혀둔다.

인명에서는 ‘김시중’을 ‘금시중’(12쪽)으로, ‘이윤락’을 ‘이중락’(143, 144, 154쪽)으로, ‘박진경’을 ‘박경진’(146쪽)으로, ‘김종민’을 ‘김종문’(261쪽)으로, ‘김순태’를 ‘김승태’(263쪽)로 각각 잘못 쓰고 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제민일보』를 『제주일보』(137, 138, 156, 163쪽)로, 『제주신문사』를 『제주일보사』(139쪽)로, 『제주신보사』를 『제주신문사』(162쪽)로 잘못 쓰고 있다. 출판사 ‘전예원’의 경우도 ‘조내원’(261, 263쪽)으로 오기하고 있다. 지명 ‘남원면 의귀리’를 ‘남원면 위미리’(167쪽, 의귀리(衣貴里)와 위미리(爲美里)는 엄연히 다른 마을이다)로 틀리게 쓴 부분도 있다. 고준석이 “이현상을 대장으로 하는 인민유격대가 태백산맥을 근거지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이 현상이 활동한 곳은 태백산 지구가 아니라 지리산 지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128쪽), ‘태백산맥’과 ‘태백산지구’는 다른 것임을 구분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임이 분명하다. ‘제주읍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오라리 연미촌’이라는 부분은 오라리 연미마을이 마치 제주읍에 속하지 않은 마을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연미마을은 성안[城內]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이기에 ‘제주읍’이 아닌 ‘제주읍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다. 책이름의 경우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청산할 수 없었던 역사』(260, 262쪽)와 『청산할 수 없는 역사』(266쪽)로 틀리게 쓰는가 하면, 한국어판인 『4·3은 말한다』와 일본어판인 『제주도 4·3사건(濟州島の4·3事件)』(163, 165쪽)을 섞어 쓰고 있다(인용문 쪽수를 한국어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4·3은 말한다』로 통일해야 마땅한 것이다). 글 제목 “4·3의 진실”을 “4·3의 진상”(262쪽)으로,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 정치”를 “폭력: 4·3 사건의 언설정치”(263쪽)로 오기하고 있다. ‘5·10 선거’를 ‘5·16 선거’(102쪽)로 쓴 부분도 있다.

4.

부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김석범과 현기영이 발문에서 밝힌 대로 ‘기이하고 기특하며 놀라운’ 저서임에 틀림없다. 일본인 사회과학자의 한반도와 제주도의 역사·정치·사회에 대한 집요한 탐구 자세는 우리 학자들로서도 정말 본받을 부분이다. 아울러 그러한 한국 탐구의 텍스트가 문학작품인 점은 문학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제주4·3의 진상 규명에 진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주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도 필독서로 권장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인 이 책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소설 『화산도』가 완역되어야 한다. 『화산도』 완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책은 기이하고 기특하며 놀랍기는 하면서도 거기서 더 나아가기가 어렵다. 누누이 강조되듯이, 작품을 읽지 않은 채 작품에 관한 평문만을 읽는 것은 공허한 일에 불과할 수 있다. 『화산도』 완역이 이루어질 때라야 이 책은 비로소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침서로서의 위상은 물론, 해방 직후의 한국 사회와 제주 4·3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텍스트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